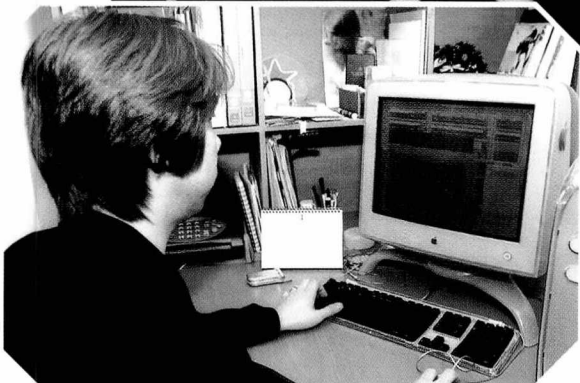


# 패스 이젠 걱정말아요

[누끼]



사진 좌로부터 황정욱씨, 김기찬실장, 김근호씨 등 지누디자인의 식구들



모 기획사에서 근무하는 디자이너 K양. 자정이 가까워지는 늦은 시간까지 K양이 끄떡되는 이유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패스(누끼). 디자인 구상에 몰두해야 할 K양이 디자인은 못하고 패스에 끄떡거리고 있으니 디자인 구상도 물 건너 간 셈이다. 비단 K양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패스는 단순작업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디자이너들에게 디자인 구상만큼이나 많은 시간을 빼앗아 가는 작업이다. 하지만 이제 패스 작업에 빼앗기는 디자이너의 시간과 고민을 해결해 주겠다는 서비스가 생겨났으니 바로 'PathPlus'가 그것이다.

“우리도 'PathPlus' 서비스를 실시하기 전에는 '패스' 때문에 많은 시간을 빼앗기곤 했죠. 물론 다른 업체에서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다 생각해 낸 것이 바로 'PathPlus' 서비스예요”

김기찬 실장(31)의 설명처럼 '패스' 서비스는 누구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실시되지 않고 있던 서비스였다.

'가격의 문제', '나도 하기 싫은데 남이라고 하기 좋아하겠어'라는 인식이 전문적인 '패스' 서비스의 출범 시기를 늦춘 것이다. 그나마 늦게라도 '패스' 서비스를 가능케 한 것은 불황 때문이었다. 'PathPlus'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곳은 '지누디자인'이라는 기획실이다. 기획실을 운영하면서 어려운 경기사정으로 인해 남는 시간이 점차 늘어나던 와중에 생각해 낸 것이 바로 'PathPlus' 서비스란다.

처음에는 '누끼나라', '누끼세상' 등의 서비스 명을 고려하다 전문성을 강조하기 위해 도안해 낸 것이 바로 'PathPlus'란 서비스 명칭이라고. 그렇다면 남들이 단순작업이라며 하기 싫어하는 패스 작업을 해 주는 '지누디자인'의 식구들의 경력은 얼마나 될까. '시다 작업' 정도로 여겨질 수 있는 'PathPlus' 서비스에 투입되는 황정욱(경력 8년), 김근호(경력 4년), 양신화(경력 3년)씨 등의 경력은 합이 15년, 평균 5년 정도의 경력이다.

평균경력 5년 차인 이들의 패스 능력은 어느 정도 일까. 2년차 경력의 평균 맥 디자이너가 걸리는 시간의 평균 5배는 절약해 줄 수 있다는 게 김기찬 실장의 설명인데 여의도 벚꽃 사진을 패스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 5분이란 다.

이는 그들 나름대로의 노하우에서 비롯된 것인데 '오프터레코드'를 요구한 그들의 서비스는 노하우는 필요에 따라 적절한 도구를 선택하는 것이란다.

“앞으로도 그럴 거지만 'PathPlus' 서비스로 인해 우리회사나 디자이너들이 잃은 게 없잖아요. 'PathPlus' 서비스 때문에 직원을 새로 충원한 것도 아니고, 별도의 사무실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모든 게 만족스럽습니다”

젊음을 무기로 새로운 틈새 시장으로 뛰어든 '지누디자인' 식구들의 새로운 도전이 기획업체 모두에게 더 한층 업그레이드된 디자인 결과를 안겨주길 기대해 본다.

이응우 기자 <photoyw@print.or.kr>